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 기획 의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는 조선, 구한말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었다. 한 나라의 유산이 누군가의 제제도 없이 그렇게 쉽게 프랑스로 건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다. 아마도 조선의 백성들은 '직지'의 우수성을 몰랐을 것이다. 반면 프랑스의 공사였던 그들은 '직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현실을 보자. 지금의 우리는 '직지'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 더불어 '직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직지'에 관심을 갖는 자가 몇이나 있단 말인가?!

당시, 우연히 '직지'에 대해 알게 된 역관과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아들의 모습은 통해 현실을 반성하고 싶었다. 선대가 남겨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유산을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 ◎ 등장인물 소개

승지(남, 27)                    역관 홍승언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으로 죽고 난 후 가세가 기울자 술이나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하지만 과거 역관 시험에 장원 급제를 하고 타국의 언어에 능한 지혜로운 자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시조의 뜻을 헤아리면서 '직지'가 숨겨진 곳을 찾는다.

사당(여, 27)                    승지의 눈에만 보이는 또 다른 그 자신이다. 영화 투캅스의 커플처럼 죽이 잘 맞는 것은 물론이요, 승지에게 조언자 역할을 한다. 시끄럽고 칼칼하지만 그건 승지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홍승언(남, 40대 후반) 승지의 아버지이다. 역관으로 전하의 신임이 두터우며 전하에 대한 충심도 깊다. '직지'의 우수성을 알게 되나 그것이 고종의 손에 들어가길 원치 않는 자들로 인해 죽게 된다. 죽기 전 '직지'를 숨겨 놓고 시조 한 편과 그의 일지를 남긴다. 그의 일지를 통해 승지는 아버지의 죽음에 감춰진 이면을 알게 되고 '직지'를 찾아 나서게 된다.

전하(고종)                    일본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 밀서를 만들지만 그 사

실에 관심 갖는 자가 적다는 사실에 비통해 한다. 그러다 홍승언을 통해 '직지'의 우수성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조선에 대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을 세운다. '직지'를 갖고 있던 홍승언 시조 한 편을 남기고 죽자 그의 아들, 승지를 통해 뜻을 헤아려 줄 것을 부탁한다. 차후 '직지'는 고종의 손에 들어오지만 그것을 탐내하던 프랑스의 포우 공사에게 넘겨주고 밀서를 그자의 국왕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알런(남) 프랑스 공사이다. 홍승언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조선에 대한 문화에 관심이 많다. 늘 홍승언에게 서책을 빌리며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어느날 서책을 통해 '직지'에 대해 알게 되고 홍승언에게 '직지'의 우수성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자이다. 하지만 그것을 노리던 자들에 의해 조선에서 쫓겨나 프랑스로 돌아가게 된다.

포우(남) 또 다른 프랑스 공사이다. 약소국의 유산을 팔아치우는 자다. '직지' 또한 탐내하고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간악한 짓을 한다. 훗날 고종이 직접 '직지'를 주면서 밀서를 국왕에게 전할 것을 부탁한다. 허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로 인해 죽게 된다.

이판(남) 전하와 나라를 배신하는 자다. 조선이 일본에 흡수되길 바라는데 '직지'가 등장하자 그것을 탐내하던 포우 공사에게 넘겨주고 밀서를 국왕에게 주지 못 하도록 할 생각을 갖는다. 그것으로 일본에 공을 세워 출세하기를 바란다. 홍승언이 죽는데 일조하였으며 승지를 감시하여 '직지'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나까무라 일본의 공사이다.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조선땅에 있다. 포우 공사를 이용해 밀서가 국왕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 '직지'를 그자에게 주려했으나 실패하고 말자 자객을 보내 목숨을 거두는 극악무도한 자다.

그 외

남자1,2, 포졸, 주모 등

## ◎ 줄거리

21c에 사는 해설자(우리 주변의 누구도 될 수 있는)가 땅에 숨겨진 서책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와 기백이 없는 자는 서책을 덮으라는 말에 오기가 생긴 해설자는 그 내용을 읽어 나가기 시작한다.

조선, 구한말 그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책! 그곳에 쓰인 내용에 따라 이야기가 흐른다.

역관 홍승언은 프랑스에 온 알런 공사와 친분이 두텁다. 그러던 차에 홍승언에게 빌린 조선의 서책을 읽던 알런은 '직지'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홍승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 하다 급히 전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작은 나라에 불과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릴 밀서를 만든다 한들 조선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했던 전하는 '직지'를 세상에 알려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직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이관은 조선이 일본에 흡수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일본 공사인 나카무라상에게 이 사실을 전한다. 마침 '직지'에 대해 알게 된 또 다른 프랑스 공사 포우는 나카무라상에게 '직지'를 자신에게 준다면 밀서 따위는 프랑스 국왕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약조를 한다.

이관과 나카무라는 홍승언이 '직지'를 찾아 청주 흥덕사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알런과 함께 '직지'를 궁에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다. 그러자 즉시 알런과 홍승언을 모함에 반역 죄인으로 모는데... 결국 알런을 조선땅을 떠나 프랑스로 쫓겨 가게 되고 홍승언은 관직을 파하고 유배를 떠나게 된다.

'직지'를 찾기 위해 뒤쫓던 그들 앞에서 홍승언은 자결을 하고 시조 한 편을 남긴다. 그의 시신을 수습한 군관이 시조를 전하에게 전하지만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자 홍승언의 아들인 홍승지를 찾아간다.

홍승지는 아버지가 반역 죄인이 되고 가세가 기울자 매일 술이나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군관은 시조의 뜻을 헤아려 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해서 '직지'의 행방을 찾던 이관은 홍승지를 감시하게 된다.

뜻을 헤아리려던 홍승지는 오히려 그 시조를 저작거리에 퍼트린다. 그 뜻을 헤아릴 때에도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떠들어 대며 이관이 보내 자들이 알 수 있도록 흘리기까지 한다. 그때 시조를 듣고 홍승지를 찾아 온 12살 병어리 아이 때문에 시조가 단종을 뜻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직지'가 있는 곳에 한발짝 다가서게 된다.

마침내 '직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낸 홍승지는 군관에게 그곳으로 가줄 것을 부탁하고 다시 술이나 마시는 방탕한 생활을 시작한다. '직지'를 갖지 못 하자 안달 난 포우 공사와 이미 전하의 손에 들어가 있을까 전전긍긍하던 나까무라는 한시라도 빨리 '직지'를 내 놓으라며 이판을 압박하자, 이판의 정신은 '직지'를 찾으러 간 군관에게 쏘린다.

자신에 대한 이판의 관심이 약해졌음을 알게 된 홍승지는 시조의 마지막 문장의 뜻을 헤아려 '직지' 찾아내 전하에게 가지고 간다. 하지만 전하는 조선을 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전하는 '직지'를 세상에 알리려던 계획을 수정한 후 포우 공사를 불러 그와 거래를 한다.

'직지'를 자네에게 주겠으니, 이 밀서를 자네의 손으로 직접 국왕에게 전하라!

홍승지는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 홍승언이 남긴 시조의 숨은 뜻이 '충의'임을 알고 전하에 뜻을 따르기로 한다. 포우는 전하에게 받은 '직지'를 조수에게 건넨 후 다음날 첫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지고 가도록 한다. 조선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후 밀서와 함께 프랑스로 건너가려 했던 포우는 나까무라가 보낸 자객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설마, 그자들이 한 나라의 공사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 했던 전하는 자신의 아둔함에 눈물을 흘리고 홍승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생각하여 직접 프랑스 국왕을 만나 밀서를 전하고 직지를 찾아오겠노라 말한다.

하지만 한 나라의 공사도 죽인 자들이다. 홍승지가 살아서 조선땅을 나간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해설자는 관객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한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이전에... 이 서책을 읽었던 자가 있었을까요? 그는 홍승지가 남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했지만 그자 역시 실패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서책을 덮고 읽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지는... '앙리 베베르'라는 프랑스 사람이 경매로 구입을 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지요.

전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이미 역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후자는... 후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서책을 읽은 지혜과 기백으로 말입니다."

본 희곡의 인물과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픽션임을 알립니다.

## 祕事 비사

- 조선, 구한 말 - 숨겨진 이야기

### 1. intro

어두운 무대.

극의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앞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해 줄 해설자, 무대 앞으로 서책을 하나 들고 나온다.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나서는 근엄한 목소리로 책 첫 장을 펴 읽기 시작한다.

해설자 나는 조선, 구한말 역관 홍승언의 아들 홍승지라한다.

이 서책을 발견하고 서책에 쓰인 글을 읽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실패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대가 백정이든, 노비이든, 여인이든.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와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한 치도 의심하지 않으나 행여 그대 스스로가 기백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 생각 된다면 이 서책이 처음 묻혀있던 그곳에 다시 물어주길 바란다.

(평소 목소리로 바뀐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대 스스로가 기백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 생각이 된다면...' 다시 묻으라니요? 이 글을 읽고 도로 책을 묻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서책에 쓰인 내용을 읽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게다가 구한말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이나 지난해인데 홍승지라는 자가 '나와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의 그 뜻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을리 없을테니까요. (사이) 서책의 1장은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홍승지라는 작자의 젊은 시절. 그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 2. 주막

주모 부지런히 술 나르고 서 너명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한 쪽 구석에서 술 마시는 홍승지.

사당의 모습은 승지에게만 보인다.

승지 카~ 술 맛 좋고.  
사당 그것이 저 통에 있는 술 마지막 잔이다.  
승지 하늘도 돌고~ 나도 돌고~ 니년도 도는 구나~  
사당 어휴. 오늘도 코가 비뚤어지게 취했군.  
승지 네 이년! 내 코가 왜 삐뚤어졌단 말이냐! 이리 오너라. 나랑 놀자~

잡으려는 승지, 도망치는 사당, 무대 위를 돌아다닌다.  
그러다 승지, 술 마시는 남자의 술병의 건드려 술을 몽땅 쏟는다.

손님1 이런, 제기랄. 술을 마시려면 곱게 쳐 마실 것이지!  
승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손님1 에이 저런 미친놈을 봤나.  
주모 그만 두시오. 지 아비 죽고 미쳤다 안 합니까. 내가 술 한 병 갖다 줄터니  
그거나 마시구료.  
승지 네 이년. 썩 거기 멈추지 못 할까!

주모, 사당 동시에 멈춘다.

주모 왜... 왜 그러시오? 내가 먼저 미쳤다고 말 안 했수! 쏟... 쏟은 술값은 안 받  
을터니 마신 술값만 내고 가시구료...  
승지 (사당 안고) 잡았구나. 네 이년. 아하하하.  
주모 아니. 저런 미친놈을 봤나. (퇴장)  
손님2 저 놈은 누굴 잡았다는 거야?  
손님1 잡긴, 누굴 잡아. 미친놈 혼자 노는데 장단 맞추지 말자구.  
손님2 그렇긴 한데... 좀 오싹 하구만. 귀신이라고 안고 있는건가.  
손님1 예끼, 이 사람. 두 사발에 벌써 취했는가? 헛소리 그만 하시구려.

사당, 신경질적으로 승지 뿌리치지만 승지, 영문도 모르고 헤헤 거리며.

승지 왜 그러느냐~  
사당 ...  
승지 왜 그러느냐는데도~  
사당 저 놈들이 나 보고 귀신이라잖아!!  
승지 니... 귀신 아니냐?  
사당 야!! 내가 왜 귀신이야 내가 왜! 니가 만들었잖아! 니 머릿속에서 만든 거잖  
아! 에이. 나 집에 갈 거야. (손님 앞 지나간다)

승지 화 났느냐? 가지 말거라~ 나랑 노올자~

손님들, 자기 앞 지나가는 승지 이상하게 본다.

사당, 가는 길 돌아와 술 마시는 손님2의 술잔을 세계 친다.

뒤로 고꾸라지는 손님2.

손님2 으아아악

손님1 쫓쫓쫓. 자네도 이젠 늙었구만. 고작 세 사발에 뒤로 고꾸라지거나 하고...

손님2 아이고, 늙기 누가 늙어? 나 아직 팔팔하다고. 이까지 세 사발에 내가 취할 소냐?

손님1 예끼, 이 사람. 취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취했다고 말 하는거 봤나?

손님2 정말이라니까, 이 사람이...

두 사람 티격태격 싸우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장면 끝난다.

## 2. 승지의 집 마당

평상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승지와 바닥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당.

군관복을 입은 남자 등장해 승지를 이리저리 살핀다.

무대 구석에서 그들을 엿보고 있는 남자 두 명도 보인다.

군관 이리 오너라.

승지 ....

군관 이리 오너라!!!

사당 일어나 승지 깨운다.

군관 그대가 흥승지라는 자요?

승지 아니오.

군관 아니오?

승지 아니오.

군관 삼한이 통일된 통일신라 이후 대대로 역관직을 지냈으며 흥순관 때는 그 위세가 하늘을 찌러 감히 맞서는 자가 없었고 두터운 전하의 신임까지 얻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외교업무에 전하를 대신하였으나... 그 오만함 또한 하늘을 찌러 전하를 배신하고 나라까지 배신하였으나 전하의 넓은 아량으로 식솔들 목숨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목숨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관직만을 파직시켜 귀

항 보냈으나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귀향길 이틀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하를  
욕 보인 홍승관의 아들 홍승지가 아니더냐?

승지 ... 그런 아버지 둔 적 없소.

군관 아무리 대역 죄인이라 한들 어찌 아버지를 부정한단 말이냐.

승지 누가 내 아버지란 말이요?

군관 (종이를 꺼내 승지에게 준다) 죽은 홍승관에게서 나온 것이다. 뜻을 헤아리  
려 했으나 찾을 수 없어 너에게 가져왔다. 받아라.

승지 돌아가시오.

군관 전하의 명이다.

승지, 사당 놀란다.

흠쳐보던 남자들 떠나려고 하면 군관, 그들을 잡아 무대 중앙에 앉힌다.

군관 누구냐!

남자1 아이고 나오리.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남자2 예, 맞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이옵니다.

군관 네 이놈들! 바른대로 고하거라! 누가 보내서 이곳까지 나를 쫓아왔느냐!

남자1 누가 보내다답쇼? 아닙니다. 나오리.

사당, 잡혀 온 남자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사당 옷은 허름한데 얼굴에 기름기가 찰찰 흐르는 것을 보니 위장인데.

승지 위장입니다.

군관 ?

사당 옷은 허름한데 신은 버선이라. 멍청하기는.

승지 신을 보십시오.

군관 버선이 아니냐! 니들이 어찌 버선을 신고 있느냐.

남자2 그..그것이...

사당 이판이랍시고 붓 좀 잡은 것 같은데 양손에 떡 자국이 있다?

승지 저놈 손에 떡 자국이 있습니다.

군관 똥이라! 지나가던 나그네가 붓을 든단 말이냐?! 네 이놈!

남자1,2 (양손을 절레절레하며) 아닙니다. 나오리. 저희는 장사꾼이온데 종이에 적다  
보니 생..생긴 것이 읍니다.

사당 떡 자국이 손바닥에 있는 걸 보니, 붓이 아니라 떡을 갈았구나, 이놈아!

승지 붓이 아니라 떡을 갈아 생긴 자국입니다.

남자1,2 !!!!

군관 떡을 갈아?!

남자1,2 아닙니다!!!

승지 붓을 권 자의 손바닥에 어찌 떡 자국이 생긴단 말이나!! 양손으로 먹을 쥐고 간 건으로 보아 지체 높은 이판택 먹이나 갈아 주고 잔심부름이 하는 하급관리인 듯합니다.

사당 흥~ 제법이네.

승지, 손가락 까닥하여 사당 불러서 옆에 앉힌다.

사당 쳇. 내가 다 찾았구만.

승지 니가 나고, 나는.. 나는 내가 아니겠느냐.

군관 뭐라고 하였소?

승지 아닙니다.

사당 니가 나고! 나도 나란다!! 흥

군관 나는 이놈들을 관아로 끌로 가리라. (가다 멈춰서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하셨소. 서둘러 주시오.

무대 끝에 서 있던 해설자에게 조명이 비춘다.

해설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코가 삐뚤어지게 하루 종일 술이나 마시는 망나니다, 지 아버지도 부정하는 개차반다! 게다가 귀신이랑 얘기하는 싸..이코다?! (몸을 부르르 떠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왜 읽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서책을 덮고 다시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절대! 기백과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아버지가 남긴 쪽지. 뜻을 헤아리라는 전하의 명.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 결국 밤잠을 설치던 저는 일어나 2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설자, 고개 돌려 무대 중앙을 본다.

### 3. 저작거리

무대 중앙. 주막 차려져 있다.

사당, 걸어 다니면 승지 뒤쫓아 걷는다.

사당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流水)로다.

승지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流水)로다.

사당 값없는 청풍(淸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라.  
승지 값없는 청풍(淸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라.  
사당 이 중에 병 없는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승지 이 중에 병 없는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사당 (긋속말?) 더 크게 따라 하란 말야 더 크게!  
승지 야, 이년아. 귀 따갑다. (크게)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流水)로다.

승지, 계속 말 한다. 무대 오른쪽 구석에 숨어 받아 적고 있는 남자 둘.  
남자1,2와 동일인물인데 옷차림만 다르다. 기생옷이다.

승지 소리 좀 질렀더니 모이 칼칼하구만. 주모, 여기 막걸리 하나 주소. 아니, 한  
통 채로 가져오소.  
사당 니 술 못 끊으면 금방 골로 간다.  
승지 국밥도 넉넉하게 하나 말아오소!  
사당 배때기가 등딱지에 들러붙었나?  
승지 네 이년. 입 다물지 못 할까!

술 마시던 손님들, 승지 보고 수군수군.  
주모 술 갖다 주는데 안절부절.

승지 예헤. 내가 한통 갖고 오랬지 달랑 한 병 갖고 오랬소?  
주모 오늘은 술이 다 떨어졌구만요. 딱 이거 남았수.  
사당 요것 봐라. 주모 머리 쓰네. 잘했수 주모!(주모 엉덩이 치는)  
주모 (두리번거리다) 그..그럼.. 곱게 마시소.

승지, 한 병 별컹별컹 마시더니 뒤쪽에 있는 통(항아리) 들어 마신다.  
무대 왼쪽 구석에서 군관, 이 모습 보고 퇴장.

무대 오른쪽 조명 비춘다.  
지체 높아 보이는 이판과 기생옷 입고 있는 남자 둘.

이판 이 시조를 떠들고 다닌다 말이나?  
남자1 예. 나으리. 저작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요.  
남자2 틀림없습니다.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지나가던 거지들은 동냥노래  
마냥 따라 읊기도 했습지요. 물론 저희들이야 글 공부 좀 했기로소 이렇게 적어 왔  
습고요. 히히히  
남자1 맞습니다요, 나으리. 히히히

이관 따라 읊을 정도로 퍼트리고 다닌다...

남자2 제가 따로 알아 본 바로는 이 시조의 지은이는 '성삼문' 이라 합니다요.

남자1 아니, 너 언제?!

남자2 그리고 이 시조를 해석하면 이렇습죠. '말없이 푸르기만 한 것은 청산이요, 모양 없이 흐르기만 하는 것은 우수로다. 값이 없는 것은 맑은 바람이요, 임자 없는 것은 밝은 달이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병 없는 이 몸이 근심 없이 늙으리라.'

무대 오른쪽 조명 비춘다.

전하와 군관이 있다.

전하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래 시조에 담겨 있는 뜻 말고 숨겨진 뜻을 찾았다 하더냐?

군관 그것이...(귓속말)

전하 흠.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군관 역관 홍승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기 전 해, 홍승지는 역관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어학실력에 버금간다 하여 조정이 발각 뒤집어 지기도 했었다 들었습니다.

전하 그랬지...

군관 지금은 미쳤다는 소문도 있고 매일 고주망태가 되어 저작거리를 다니고는 있사오나...

전하 있으나...?

군관 그 자신도 이 시조처럼... 숨겨진 뜻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대 중앙 조명 비춘다.

통(항아리) 내려놓는 승지.

승지 카~ 맛 좋구나. 킁~ 주모. 내 돈은 곧 줄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시오.

주모 아..아니! 오늘 장사할 거 다 마셔놓고 그냥 간단 말이오?

승지 어허. 주모 왜 이러시나. 우리가 한 두 번 본 사이인가. 나 홍승지일세, 홍승지.

주모 그럼요. 잘 알고말고요, 홍승지어르신! 귀신이 어디 저런 놈 안 잡아 가고 옆에 찰싹하니 붙어 있는지 몰라. 에이그, 오늘 장사 망했구만 망했어! 다들 그만 가시오, 가!!

퇴장하는 사람들, 승지와 사당만 남는다.

승지, 평상에 좌상한 채 눈 감고 앉아 있다.

남자1,2 숨어서 보고 있다.

사당 너 정말 못 됐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인데, 파는 그 술을 몽땅 마셔놓고 그냥 가면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살란 말이야?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승지 네 이년, 시끄럽다...

사당 내 살다살다 너 같은 망나니는 처음 본다. (시끄럽게 쏟아지는 잔소리..)

그때, 거지옷을 입은 아이(12살 정도).

승지 앞으로 걸어온다.

승지 (아이에게) 누구냐?

거지아이 ....

승지 네 이놈! 사람 앞에 멈춰 섰으면, 나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다 라고 이름을 밝혀야 마땅할 것이고, 자네가 흥승지인가? 라고 묻고 난 연후엔, 나는 이리이러한 일 때문에 왔소이다. 라고 말 하는 것이 사대부의 도리일 것을! 그리 입 다물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으면 어찌란 말이냐! 어허 이렇게 말 하는데도!

사당 완전 취했군. 저리 비켜 봐. 너, 우리 찾아 온 거니?

거지아이 (고개 끄덕이는)

사당 왜 왔는지 말해 줄래?

거지아이 ....

사당 으흠. 병어린가 본데... 어찌지.

승지 너... 12살이냐?

거지아이 (고개 끄덕이는)

승지 쪼만한게 야밤에 뿔하러 돌아다니는거냐! 어여 집에나 가거라!

거지아이 (뛰어가는)

사당 어..어.. 어디가는 거야? 야! 야!! 흥승지, 우리 찾아 온 애를 그냥 보내면 어떡해!! 그러게 내가 술 작작하랬지! 이 술주정뱅이야!!!

승지 귀 따갑다, 이년아.

사당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어라! 흥.

승지 사당아~

사당 ...

승지 사당아~

사당 니 부르라고 지은 이름 아니다!

승지 지은이 성상문은 언제적 사람이냐?

사당 단종이다!

승지 즉위한 나이가 몇 살이더냐?

사당 12살이다. 그건 왜 묻는..! 어!

승지 말없이 푸르기만 한 것은 청산이요~

사당 역올하다 말 한 마디 못하고 죽었지, 단종이?  
승지 모양 없이 흐르기만 하는 것은 우수로다.  
사당 세조는 단종의 능도 만들지 않고 강에다 버렸고? 이후 어떤 자가 시신을 건  
어 능을 만들었다 했어. 그럼 거기? 에이. 아니야. 만약 그곳이라면 이 시조를 알고  
있는 자들이 이미 가봤을 거야. 안 그래?  
승지 값이 없는 것은 맑은 바람이요.  
사당 맑은 바람... 맑은 바람... 값이 없다?  
승지 충절이다.

기웃거리던 남자1,2 자리를 뜨고 그들 뒷모습 보는 승지.  
무대 어두워지면서 오른쪽에 조명 비춘다.

이판 보고 들은 바를 소상히 말해 보거라.  
남자1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으리...  
남자2 혼잣말로 시조만 중얼중얼 거리는데... 당췌 무슨 말을 하는건지... 나으리,  
그 자가 뭘 알아내겠습니까? 미쳤다고 저작거리에 소문이 자자한 놈입니다. 그런  
놈을 계속 뒤따라 다니는 게 뭘 소용이 있을런지요. 헤헤헤.  
이판 네 이놈! 보고 들은 바를 말 하라 했다!  
남자1 예... 나으리 그것이...  
남자2 성상문이 언제적 사람이냐고 혼잣말을 해댔습니다요. 또 말 못하는 12살 거  
지가 한 명 지나갔었고 즉위한 나이가 몇 이냐 묻더니만 충절이라 했사옵니다.  
남자1 사당아~ 사당아~ 그러는데... 어흐흐 미친놈입니다요, 나으리. 귀신이랑 얘기  
하는 것이 단단히 미친놈이었습니다요.  
이판 그건... 단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남자1,2 단종이랍쇼??  
이판 에이. 썩 나가거라!!

줄행랑치는 남자1,2.

이판 그래, 그것들은 모두 단종을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그럼 단종의 능이 있는  
곳에 그것이 있단 말이냐? 쫓쫓쫓. 홍승언의 아들이라 하여 내 유심히 지켜보았건  
만 명칭하기 그지없지 않느냐. 그곳은 이미 훑어보았다! 아무 것도 없단 말이다!!  
남자1 (목소리) 나으리~ 포우 공사님 드셨사옵니다~  
이판 뭣이라? 으흠. 어서 들라하여라  
포우 그래. 그것은 찾으셨습니까?  
이판 물론입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실 날이 아직 남아있으니 조선을 좀 더 구경하  
고 계시지요. 제가 다른 것들을 덤으로 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조만 잊

지 마시지요.

포우 하하하. 알겠습니다. 역시 나까무라상의 말대로 이조판서를 만나길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관 하하하. 별 말씀은요. 걱정마시고 돌아가시지요. 하하하.

#### 4. 과거/승지의 꿈

승언, 서가에서 책들을 보고 있다.

포우가 아닌 다른 프랑스 공사 한 명,

서책 3~4권을 들고 등장한다(알런)

알런 (장난스럽게) 홍승언 역관! 이 시간까지 책을 보고 계십니까?

승언 (맞장구치며)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프랑스에서 오신 알런 공사가 아니십니까? 이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빌려드린 서책을 벌써 다 읽으신 겁니까?

알런 서책이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다 읽었습니다.

승언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두 배로 하여 백 권을 빌려드려야겠습니다.

알런 제게 백 권이나 빌려주시면 홍역관은 읽을 서책이 없어 슬프지 않겠습니까?

승언 서책에 파묻혀 근심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니 있는 병도 다 나은 듯합니다. 좋은 벗에게도 근심걱정 없는 한 해를 선물하는 것이 온데 읽을 서책이 없다면 슬프겠습니까?

알런 하하하. 맞장구치는 실력이 늘었소, 홍역관.

승언 아직 그대에게 배울 것이 많지 않겠소, 알런 공사. 하하하. 헌데 정말로 서책은 다 읽은 건가?

알런 아름다운 글자 하나하나와 그 속에 담긴 오묘한 뜻을 보느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오.

승언 그리 열심히 읽으니 조만간 조선의 백성 보다 한글을 더 잘 사용하지 않겠나.

알런 하하하. 과찬이라네.

승언 하하하. 과찬이란 말도 아는가?

알런 하하하. 송구하네.

승언 하하하. 송구하단 말도 알고?

알런 하하하. 자네 놀리는 겐가?

승언 (당황) 놀리다니, 당치 않소 알런!

알런 농담이요. 농담~ 홍역관은 나한테 농담도 배워야겠소.

승언 아, 그런 것이요? 깜짝 놀랐소이다. 하하하.

알런 하하하. 홍역관이 빌려준 책을 읽다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물어 봐도 되겠는가?

승언 물론이오. 알런.

알런 (책 펼치며) 이곳에 보면 '직지'라는 서책을 1377년에 금속활자로 찍었다고 나와 있소. 이것이 사실인가?

승언 음, 맞소. 백운이라는 작가 1372년 공민왕 때 상하 두 권으로 편집하여 저술하였고 1377년에 석찬과 묘덕이라는 자가 간행하였지.

알런 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랍구료!

승언 왜 그러시나, 알런?

알런 인류 문화의 역사상 3가지의 혁명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언어의 사용이고 두 번째는 문자의 발명이고 세 번째가 인쇄술을 발명이라 하였소.

승언 그렇지요.

알런 그 중 인쇄술이란, 지식과 지혜가 담긴 내용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해주오. 따라서 백성들은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알거나 배울 수 있게 되지.

승언 그렇소. 그리하여 무지한 자가 사라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알런 맞소. 그런데 현존하는 금속활자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

승언 글썄...

알런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라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발명해지.

승언 음... 근데 '오래 된 것'이 아닌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것' 라는 과거 표현을 쓰시나? 흑..?!

알런 맞소이다! 홍역관은 알아채실 줄 알았대요. 하하하

승언 ?!

알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1455년에 발명되었다네. '직지' 보다 78년이나 늦은거지. 그렇다면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서책 일 거라는 게 내 견해네. 이것은 세계 역사의 새로운 발견일 것이야. 이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면 조선을 바라보는 눈 또한 바뀔 것이고.

승언 그게 정말이오?

알런 물론이네! 누가 감히 조선이 무능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나?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은가? 하하하.

승언 조선의 희망을 발견한 것 같소. 전하께 이 사실을 아뢰고 직지를 가져와야겠네.

알런 현존해 있는 것이 확실하오? 어디에 있는가?

승언 청주의 흥덕사라는 곳에 있을 것이오.

알런 잘되네, 홍역관! 가져오시거든 나도 한 번 보여주시게.

승언 물론이지, 알런 공사! 하하하

조명 어두워지고 무대 두 개로 나누어진다.

오른쪽 무대 밝아지면,  
전하-홍승언-이관(이조판서)가 있다.

전하 '직지'라는 것이 정말 그러하단 말이나?

승언 예, 전하. 알런 공사는 학식이 높고 조선의 문화에 조예가 깊사옵니다. 그자가 하는 말이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 짐이 이렇게 기쁘는데 이 사실을 백성들도 알게 된다면 나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관 하오나, 전하. 지금은 흉작에 가뭄까지 겹치어 민심이 어지럽사옵니다. 그것이 알려진다하여 무슨 변화가 있겠나이까.

승언 아니옵니다, 전하. 백성들은 물론이오 공사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려진다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아뢰옵니다.

이관 그전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것 보다 시급한 것은 당장 일본 공사들의 도움을 받아 곡식을 푸는 일이라 생각되옵니다.

승언 조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을사조약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각국의 관심을 받을 수 있사옵니다, 더군다나 조선의 우수함을 알리는 것 또한 되는 것이니 무능한 조선을 가르치겠다는 일본의 말과도 상반되옵니다. 지금 당장은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겨내야 하오나 멀리 본다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관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 아니다. 홍승언의 말이 옳다. 짐이 일이 시작하기에 앞서 '직지'가 필요할 듯하다. 역관 홍승언은 '직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승언 예, 전하. 청주의 흥덕사에 있사옵니다.

전하 급히 그곳으로 가 '직지'를 가져오너라.

승언 명을 받들겠나이다.

조명 어두워지고, 왼쪽 무대 밝아진다.

포우 1377년이라 했소?

알런 그렇다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것이 세계에 알려지면...

포우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알런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포우 조선은 곧 일본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되면 '직지'라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알런 그렇지 않다네. 자네도 을사조약의 부당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나? '직지'가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그것은 곧 조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네. 그

렇게 되면 세계에서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게 될 것이고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포우 자네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리 우습게보았나?

알런 무슨 소리인가?

포우 지금도 조선의 문화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네. 그것들 역시 세계 어느 나라의 문화 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네. 그렇다면 '직지'는? 직지도 곧 그 모습을 감출 것이네. 어딘가에서 불 피울 불쏘시개로 사용될지도 모르지.

알런 자네 말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전에 우리가...

포우 알런. 자네 밤낮 책만 읽더니 사람이 갑갑해졌구만. 우리가 '직지'를 세계에 알리기 전에 이미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란 말이네. 차라리 그 전에 프랑스로 가져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것이 어떤가?

알런 .... 보관이라고 했나?

포우 그렇다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알런 보관이 아니라 자네 귀국 밀천으로 쓰고 싶은 거겠지!

포우 그게 무슨 소린가!

알런 몇 해 전에서 일본그림을 경매로 팔았다고 들었네.

포우 그건 선물로 받은 것이네!

알런 나는 그래도 자네가 양심이라는 건 있는 줄 알았건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포우, 내 당부 하나 하겠네. '직지'는 세계 유산이 될 조선의 문화네. 그것을 어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나!

포우 뭐.. 뭐라!!

알런, 퇴장하면,

나까무라상 슬그머니 들어온다.

나까무라 친구분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포우 어흠. 무슨일입니까, 나까무라상?

나까무라 하하하.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 이거...(그림 내미는)

포우 이게 무엇입니까?

나까무라 조선의 민화입니다. 처음 그려질 때이니 값어치가 꽤 있을 것입니다.

포우 (그림 밀쳐내며) 내가 그리 속물로 보이십니까?

나까무라 ?! 종이 구겨지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 만한 분이...흠흠. 그림이 맘에 들지 않습니까?

포우 이 까짓 그림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나까무라 ?! (갑자기 웃으며) 하하하. 공사님, 혹 맘에 드는 것이라도 찾으신 겁니까? 말씀만 하시면 갖다 드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포우 그게 정말이오?  
나까무라 아하하하. 약조만 시켜주신다면야...  
포우 아하하하. 여부가 있겠소.

나까무라에게 귓속말 하고 퇴장하는 포우,  
무대 다른쪽(오른쪽, 왼쪽 제외)에 조명 비춘다.  
이판(이조판서) 있고, 그에게 다가가는 나까무라상.

이판 오셨습니까, 나까무라상!  
나까무라 안녕하셨습니다, 이판 나리. 오랜만입니다.  
이판 어인 일이십니까?  
나까무라 어인일은요... 조정에 별일은 없습니까?  
이판 별일..별일이라... 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까무라 골치 아픈 문제?  
이판 '직지'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까무라 '직지'말입니까?!  
이판 알고계십니까?  
나까무라 아..하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해 보시지요.  
이판 조선에 '직지'라는 서책이 있다합니다. 그것이 꽤나 가치가 있는 듯한데...  
전하는 '직지'를 세계에 알려 각국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까무라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힘들어집니다.  
이판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빨리 일본과 하나가 되어야 백성  
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텐데... 쫓쫓.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 한단  
말입니다.  
나까무라 '직지'를 저에게 주시지요.  
이판 예?  
나까무라 이판도 일본과 조선이 하루빨리 하나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이판 그렇기는 하오나, 그것을 어찌... 빼들린단 말입니까?  
나까무라 그건 이판이 하셔야지요. 공을 세우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셨습니  
까.  
이판 으흠. 그럼... 자리 하나는 확실 한 것이지요?  
나까무라 이판은 이미 저희와 한 배를 탔습니다. 자리 하나 뿐이겠습니까? 그  
에 맞는 대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판 (음흉하게 웃으며) 알겠습니다...

나까무라 퇴장.

이관 계, 밖에 누가 있느냐?

남자1,2 소인들 들었사옵니다.

이관 너희들은 지금 당장 청주의 흥덕사 쪽으로 가서 역관 홍승언의 뒤를 밟도록 해라.

남자1,2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조명 어두워지고, 무대 오른쪽 밝아진다.

홍승언을 기다리는 초조한 알련과 막 도착한 홍승언이 보인다.

승언 알련 공사, 늦은 밤에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내 마중이라도 나온젠가? 하하.

알련 내가 실수를 한 듯하네.

승언 실수라니?

알련 자세한 말은 나중에 듣게나. '직지'는 가져왔는가?

승언 그렇다네. 내 붓짐...

알련 꺼내지 말게!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네.

승언 알련..?! 알았네.

알련 자네 집은 어떠한가? 아니면...

승언 궁으로 가게나.

알련 궁?

승언 궁에 전하가 보는 서책만을 따로 두는 서가가 있네. 그곳이 조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일 것일세.

알련 좋네. 서두르게.

승언 허나... 자네는 들어갈 수 없네.

알련 ?!

승언 그곳은 전하가 하사한 '괘'가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네. 게다가 자네는 외국인 아닌가. 나 혼자 가겠네.

알련 그럴 수는 없네.

승언 ?

알련 지금은 시간도 늦었고 자네 혼자 그곳까지 가기엔 길이 너무 위험하네. 켈문까지라도 함께 가야겠네.

승언 알았네. 서둘러 가게나.

켈문, 남자1,2 보초를 서고 있다.

남자1 무슨 일이십니까?

승언 역관 홍승언이 전하를 뵈러 왔다.

남자2 패를 보여주시지요.

승언 여기있다.

남자1 이분은.. 함께 들어가십니까?

알린 ...아닙니..

승언 맞다.

남자2 패를 보여주시지요.

승언 나와 수족을 함께하는 프랑스 알린 공사님이시다. 조선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하를 패를 받지 못 했다. 시간이 없으니 문을 열거라.

남자2 하오나...

승언 네 이놈! 역관 홍승언을 모른단 말이냐!

남자2 아..아닙니다. 들어가시지요.

남자1,2 문 열어주고 퇴장한다.

알린 어찌 그리하였는가...?

승언 지금은 시간도 늦고 위험하다 말하지 않았는가? 하물며 궁 안에 있는 나 보다 궁 밖에 있는 자네가 더 위험하지 않겠는가.

알린 홍역관...

승언 서가까지는 일각쯤 걸리네. 서둘러 걸음을 옮기게나.

알린 알았네.

조명 어두워지고,

무대 한쪽 밝아지며 이판과 나까무라상, 남자1,2 보인다.

이판 궁으로 들어갔다?

남자1 예, 나오리. 그.. 프랑스 알린 공사라는 사람과 함께...

나까무라 알린?!

이판 아는 사람입니까, 나까무라상?

나까무라 우리 일을 도와주는 프랑스 공사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판 그렇습니까? 으흠.

남자2 서가를 간다고 했습니다요. 급히 서둘러 가는 것이 좀...

이판, 나까무라 서가?!

나까무라 이판.

이판 전하께서 가시는 서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흥덕사에서 오자마자 그곳을 간다는 것은...

나까무라 '직지'를 숨기기 위해서겠지요. 우리도 그곳에 가야겠습니다.

이판 그곳은 전하의 '패'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관 홍승언같은...  
나까무라 알린 공사도 궁에 함께 들어갔다면 그 자 역시 서가에 가지 않겠습  
니까.

이판 만약 그렇다면... 패가 없이 들어갔을 것이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까무라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자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판 좋습니다. 저는 지금 궁으로 가 소란을 좀 피어야겠습니다.

나까무라 저는 포우라는 저희쪽 프랑스 공사를 만나도록 하지요.

무대 어두워진다.

어둠 속에서 '궁에 첩자가 들어왔다. 역모다! 횃불을 밝혀라.

첩자를 잡아라!' 등 소리 들린다.

열은 불빛 하나 비추면 알린과 승언 보인다.

승언 이게, 무슨 일인가? 역모라니!

알린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인 것 같소.

승언 우리라니!

알린 시간이 없소. 어서 궁을 빠져 나가시오.

승언 무슨 소리인가, 알린!

알린 시간이 없대요.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나가야 하오.

승언 알린!

무대 어두워진다.

무대 중앙에 조명 비추면, 왕과 주위의 신하들 및 포우, 이판, 나까무라가 보이고  
알린, 무릎을 꿇고 있다.

무대 맨 앞으로 남자1 들어와 이판과 대화한다.

둘의 대화는 관객만 들을 수 있다.

이판 홍승언은 없었던 말이나?

남자1 예, 나오리... 저 자 만이 서가 앞에 있었사옵니다.

이판 흠... 너는 지금 당장 서가를 검색해야겠다. 포졸 몇 명과 서가를 검색하면서  
조선의 지리나 지형에 관한 서책 두 세권을 훑쳐라. 그리고 '직지'라는 서책이 있는  
지 확인 하거라.

남자1 왕의 서책을 훑치란 말입니까?

이판 말소리를 낮춰라.

남자1 저.. 서책은 저기 잡혀 온 죄인이 훑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판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남자1 하지만 나오리...

이판 썩 가지 못하느냐!!

남자1 퇴장한다.

이판, 무대 중앙으로 들어온다.

이판 네 이놈! 무엇 때문에 이 늦은 시각에 궁 안으로 들어왔느냐!

알런 저는... 늦은 밤 궁 안이 아름답다 하여 구경을 하러...

이판 감히 어느 안전에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전하, 저 자는 늦은 시각에 궁 안에서 잡힌 자이 옅니다. 게다가 잡힌 곳은 전하의 서가가 있는 곳이었사옅니다.

남자2 (관복 차림이다) 그곳은 전하가 침소 드시는 곳과 가까이 있는 곳이 아넅니까? 아뢰옅기 황공하오나, 전하를 헤아려는 역모가 아니겠사옅니까.

알런 역모..? 역모라니요! 아니옅니다, 전하.

전하 너의 이름이 알런이라 하였느냐.

알런 그렇사옅니다. 전하. 저는 프랑스 공사의 자격으로 조선에 온 자이옅니다.

포우 맞습니다, 전하. 저와 같이 온 자이옅니다. 헌데...

전하 ...?

포우 최근 들어 저 자의 태도가 수상했습니다. 조선의 지리, 지형에 관한 책들을 읽고 조선 문물을 수집하고 있었사옅니다.

알런 ?! 포우,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것인...

이판 지리, 지형에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와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뜻이 아니옅니까!

남자1 등장해 이판에게 귓속말 한다.

이판 전하...! 서가에 있던 책 두 권이 없어졌다 하옅니다! 모두 조선의 지리, 지형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옅니다. 역모이옅니다, 전하!

알런 아넅니다. 저는 서책을 훔치지 않았사옅니다. 목을 내놓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제가 감히 왕의 서책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남자2 그렇다면, 네 목숨을 거둬야겠구나. 네 놈이 잡힐 당시 서가의 문은 열려있었다! 그리고 서책이 없어졌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판 전하. 저 자를 능지처참하여야 하옅니다. 또한...

전하 말 해 보거라.

이판 저자는 역관 홍승언과 친분이 두텁고 서가 역시 전하의 패를 받은 홍승언만이 들어갈 수 있사옅니다. 이 일에 그 자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옅니다. 그 자 또한 잡아 들여야 하지 않겠사옅니까.

남자2 그렇사옅니다, 전하. 역모이옅니다. 그 자가 도망치기 전에...

전하 그리하여라...

남자1, 홍승언을 끌고 등장한다.

이판 대역 죄인 역관 홍승언을 죽이시...

이판, 남자 1 무대 앞으로 나와 얘기한다.

대화는 관객만 들을 수 있다.

남자1 홍승언의 집에도 없사옵니다.

이판 살살이 찾아보았느냐?

남자1 예, 나오리. 먼지 하나까지 모두 보았습니다요.

나까무라 (끼어들어) 그럼 '직지'가 어디 갔단 말입니까?

포우 (끼어들어) 난 그것이 갖고 싶습니다.

이판 조용 조용!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홍승언을 죽일 수 없겠습니다.

남자2 (끼어들어) 오히려 잘 되지 않았습니까. 홍승언은 전하의 신임을 얻고 있는 자이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자를 죽이라 청하다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우리를 곱게 보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그를 살리자고 간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직지'도 찾고 전하의 '신임'도 얻고 말입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하 계속 말하시게, 이판.

이판 전하... 역관 홍승언은 공모의 혐의가 의심되나 그 증좌는 없사옵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참수에 처한다면 전하에게 누가 될 것이옵니다. 허나 이대로 풀어준다면 전하의 안위가 걱정스럽사옵니다. 알린 공사와 친분이 두텁고 그자가 서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에는 홍승언의 도움이 없다 말 할 수 없으니 그 죄를 물어 관직을 파하고 유배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사옵니까.

전하 관직을 파하고 유배라 하였느냐?

이판 예, 전하. 역관 홍승언은 덕망이 있었던 자이오니 은혜를 베푸시어 형을 내린다면 백성들은 물론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 역시 전하의 은혜에 감복할 것이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대감들?

남자2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판 또한, 알린 공사는 프랑스의 사신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죄가 분명하고 무겁기는 하나 참수를 한다면 그것은 곧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량을 베푸시어 새벽 첫 배가 뜨면 당장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포우 예, 전하. 지금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조선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것입니다. 알런 공사가 목숨을 부지하고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택하여 주시  
옵소서.

근심스러운 전하의 표정, 어지러운 듯 휘청거린다.

옆에 있던 군관 전하를 보필한다.

무대 어두워지는,

무대 밝아지면 알런 공사와 흰 한복을 입은 승언 그리고 포졸1 이 보인다.

알런 홍역관...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승언 걱정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시게나. 그들의 거짓된 말에 현혹될 전하가 아니  
시네. 내 걱정은 말게나.

알런 승언...

포졸1 배가 들어왔답니다. 그만 가지지요 알런 공사님.

알런, 포졸과 퇴장한다.

포졸2 죄인 흥승언은 뭇 하느냐! 서둘러 유배지로 가자는데도!

멀리서 남자1 승언을 훑쳐본다.

승언 잠시 멈추시게나.

포졸2 지체 할 시간이 없다!

승언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포졸2 아니. 유배지로 간다고 다 죽는단 말이나. 시끄럽다!

승언 이보게나. 내 부탁 좀 함세.

포졸2 으흠. 거참... 말 해 보게나.

승언 가는 길에 내가 죽거든. 반드시 군관에게 내 시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게  
나.

포졸2 에그.. 그 무슨 말을 그런가! 가는 길에 죄인 죽으면 내가 얼마나 골치가 썩  
는....

남자1 나타나 승언과 포졸2를 가로 막는다.

남자1 죄인은 우리가 데려가야겠다!

포졸2 니..니가.. 누군데 가는 길을 막..막는단 말이나!! 저...저리 비키지 못 할까?!

남자1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포졸2 ...네 이놈! 내가 비록 죄인을 유배지로 끌고 가는 미천한 하급 병사이기는

하나 나라의 녹을 먹는 자다! 썩 물러가거라!

남자1과 포졸2 칼싸움이 나고 남자1 쓰러진다.

남자1이 승언을 데리고 가려 하면 승언은 자결하고

그때 군관이 나타나 남자1를 쫓아내고 승언 시신을 거둔 후 퇴장한다.

무대 어두워진다.

##### 5. 현재 - '직지'를 찾아 나서다.

조명 밝아지면, 승지 탁자에 앉아 있다.

탁자에는 서책 하나가 놓여 있고

멀리서 남자1,2 승지 훑쳐보고 있다.

사당 어, 홍역관님 일지 아냐? 유품 중에 남아 있는 게 있었네. 어떻게 네가 갖고 있는 거야?

승지 ...

사당 으흠. 뭐 찾아 낸 거라도 있어?

승지 아버님 죽음과 이판이 관련 있다는 사실 정도.

사당 뭐?! 역시, 역시, 역시. 알런 공사랑 홍역관님이 순식간에 죄인이 되는 걸 보고 내 짐작은 했다니까. 근데, 이판은 홍역관님한테 얻어낸 게 없는 모양이야.

승지 왜?

사당 저 쪼무래기 들. 계속 우릴 감시하잖아.

승언이 보면 남자1,2 떼창 피운다.

승지 도대체 이판은 왜 저런 멍청이들을 나한테 붙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짬. 군관이나 만나야겠다.

사당 아~ 잘생긴 군관! 나도 갈래!

승지 이 년아, 언제나 니가 안 쫓아 왔느냐!

군관 등장한다.

군관 자네는 정말 귀신이랑 얘기라고 하는 건가?

사당 나 귀신 아니야!!

승지 시끄럽다.

군관 뭐, 뭐라 하였는가?

승지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귀신이랑 얘기 한 거요.  
사당 야~!!!  
승지 시끄러.  
사당 흥.  
군관 흠. 바쁜 것 같아 일부로 나를 만날 시간은 없는 듯 하고. 하여 다시 찾아왔다. 뜻은 헤아렸는가?  
승지 거 헤아릴 뜻이나 있겠습니까.  
군관 하하. 헤아렸다는 말 보다 고약한 말이 아니냐. 말해 보거라.  
승지 그 전에, 여쭙 볼 말이 있습니다.  
군관 무엇이나.  
승지 아버님... 가시는 마지막 길은 평안하셨습니까.  
군관 ... 아니다. 할 일을 다 하지 못 하고 떠나는 자의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다.  
승지 ... '직지'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관 어디냐.  
승지 하지만 약조하실 것이 있습니다.  
군관 무엇이나.  
승지 저 쫓무래기 두 명을 달고 가십시오.

군관, 남자1,2 보면, 남자1,2 만칭 피운다.

군관 알았다.  
승지 강원도 영월로 가십시오.  
군관 단종의 능이 있는 곳 말인가?  
승지 네.  
군관 그곳은 이미...  
승지 그리고...  
군관 ?  
승지 한참을 더 내려가 경북 군위군에 있는 조림산을 가십시오.  
군관 그곳엔 무엇이 있는가?  
승지 (종이를 준다) 차후에 읽으십시오.

군관, 머뭇거리지만 승지를 믿는다.

군관 알았다. 이제 자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승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그것이 있는 곳을 말씀드렸으니 저는 이제 주막에 으르가 술이나 마시렵니다. 네 이년, 군관 나리 얼굴 그만 좀 보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사당, 군관 얼굴 뚫어지게 보고 있다.

승지 어허, 이리 오라는데도! 그리 보다 얼굴에 구멍이라도 나면 니가 책임이라도 질 것이냐!

사당 그럼, 그럼! 내가 책임지지.

사당, 승지에게 끌려가며 두 사람, 퇴장한다.

군관, 붓짐 등 이것저것 챙기더니

무대는 '직지'를 찾아가는 길로 바뀐다.

군관, 남자 1,2가 잘 따라오는지 이따금씩 확인한다.

무대 오른쪽 구석에 조명 비추며 이관 나타난다.

이관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그자가 단종의 능이 있는 곳을 간다면 필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숨겨 놓은 '직지'를 찾아 낼 것이다.

무대 왼쪽 구석에 조명 비추면 승지 나타난다.

승지 단종의 능이 있는 곳에 도착하시면 그곳에서 하루 머무십시오. 그리고 뒤쫓아 오는 자가 들을 수 있게 크게 읽으십시오.

군관, 승지가 준 종이를 읽는다.

군관 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능을 만든 자는 '엄홍도'라는 자이옵니다. 단종을 시신을 거두는 자의 가문을 멸족시킨다 하였으나 그 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능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의 묘를 찾아가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보게 여기에 엄홍도라는 자의 묘가 어디에 있는가?

행인 충의공 엄홍도 말입니까?

군관 그렇네.

행인 충의공 엄홍도의 묘는 이곳 영월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흔적은 찾을 수 없고...

군관 없단 말인가?

행인 그자가 은둔 생활을 했던 경북의 군의군 조림산에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군관 조림산 말인가?

행인 예. 이곳에 사는 이들은 다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군관 고맙네.

행인 예.

군관 .... 그 자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한데. 굳이 나를 이곳까지 가란 한 연유가 무엇인가.

군관, 길을 떠난다.

무대 오른쪽 구석에 조명 비추면 이판 나타난다.

이판 만약 길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 반드시 '직지'가 있을 것이다.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너희가 따라간다는 사실을 눈치 채서도 안 된다!

무대 왼쪽 구석에 조명 비추며 승지 나타난다.

승지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느리게... 더욱 느리게... 그리 갖다 오십시오. 군관 나리, 관직에 있던 자가 죽으면 그의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시호라고 하지요. 엄홍도가 받은 시호는 '충의'이옵니다. 충성과 절의. 아버님이 가시는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하여 슬퍼 하셨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겠지요. 또한 제가 헤아리길 바라던 아버님의 뜻 역시 이것이옵니다. 전하에 대한 '충절'.

무대 오른쪽 구석에 조명 비추며 이판, 나까무라, 포우 나타난다.

나까무라 이판, '직지'를 찾았다 들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이판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포우 급하고 말고요. 곧 왕께서 밀서를 주실 겁니다.

이판 밀서요?

포우 그렇습니다.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프랑스의 국왕에게 전달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판 그게 정말입니까? 어찌 내가 모르게...

나까무라 홍역관이 죽고 조정에서 이판을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판이 나와 일본을 위해 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보지요.

이판 나까무라상!

나까무라 만약 이판이 '직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홍역관을 죽인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판 왜 이러시오. 그자는 자결 했소. 잘 알고 있지 않소!

포우 이판! 나를 바보로 아십니까? '직지'를 찾지 못 할 바에는 왕의 손에도 들어가지 못 하게 영원히 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이판 아닙니다..!

포우 나는 '직지'가 없으며 당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판 말대로 '직지'를 가지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나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나까무라 이판...이판...이판!! 당신이 일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당신 말대로 '직지'가 당신의 손에 있길 바랄 뿐입니다! 대 일본제국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대 왼쪽 구석에 조명 비추며 승지 나타난다.

승지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는 군관 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판은 초조해 질 것이고 더불어 희망 또한 커질 것입니다. 단종의 능을 갖다 오고도 남을 시간 동안 이판이 보낸 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군관 나라가 정말 '직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돌려서 늦는 것이라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갖고 있는 이판의 관심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군관 나라를 그 먼 곳 까지 보냅니다. 용서하십시오.

## 6. 궁 - '직지'의 행방은?

전하와 승지가 있다.

승지, 전하에게 '직지'를 준다.

전하 역관 홍승언의 서가에 있었던 말이나.

승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찌 알았느냐.

승지 시조의 마지막은 '임자 없는 것은 밝은 달이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병 없는 이 몸이 근심 없이 늙으리라.'이옵니다.

전하 그랬지.

승지 아버님은 서가에서 종일 서책에 묻혀 지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서책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 있는 병 또한 사라지는 것 같다 말씀하셨지요.

전하 허나, 그 많은 서책 중 '직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던 말이나.

승지 아버님은 늘 일지를 쓰셨습니다.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으시곤 했지요. 어린 시절 저의 낙은 그런 아버님의 일지를 훑쳐 읽는 것이었사옵니다...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일본군이 들어오고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감히 제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일지를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신 후 행여나 궁에서의 일들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우려하신 듯합니다. 그리하여 서가에 굴을 만들어 일지를 숨겨 놓

으셨습니다. 허나 저는 그곳을 알고 있었고...

전하 '임자 없는 것은 밝은 달이라...' 죽은 흥승언의 임자 없는 일지가 있던 곳에 '직지'가 함께 있었구나.

승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대는.. 내가 '직지'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느냐.

승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옳지 않다 생각하느냐.

승지 ...

전하 이곳에 있는 프랑스 공사는 포우뿐이다. 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밀서를 프랑스로 보낼 수 없다.

승지 전하...

전하 그대의 지혜로 이판은 관심은 '직지'가 있다 생각하는 곳으로 가 있을 것이다. 포우 공사에 대한 신경 쓸 겨를조차 없겠지.

승지 그 자를 부르셨습니까.

전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생각했다. 그대의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짐이 지켜주지 못함을 용서해 주게. 들라 해라.

포우, 등장한다.

포우 부르셨습니까.

전하 그대가 '직지'를 원한다 들었다.

포우 전..전하...

전하 짐이 그대에게 '직지'를 준다면 그대는 조선을 위한 일을 해주겠는가.

포우 '직지'가 전하의 손에 있는 것은 확실하옵니까?

승지 네 이놈. 무례하구나!

전하 (보여주며) 짐이 갖고 있다. 짐은 그대에게 조선의 유산을 주려는 것이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느냐?

포우 그러하옵니다.

전하 밀서를.. 그대의 국왕에게 전해주겠는가.

포우 그리하겠습니다.

전하 믿어도 되겠는가.

포우 저는 일본을 위해 일하는 자도 아니고 조선을 위해 일하는 자도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신다 하면 차후의 일을 거절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전하 좋다. 밀서는... 반드시 그대가 갖고 있다가 그대가 직접 국왕에게 전해야 한다.

포우 그리하겠습니다.

전하, '직지'와 밀서를 포우에게 준다.

포우 그것을 들고 퇴장한다.

전하 비통하냐?

승지 ...

전하 허허.. 다른 말을 못 하는 구나. 홍역관을 닮았다.

승지 전하...

전하 그대의 아버지는 내가 지키지 못 했다. 아님을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승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전하 ...

승지 ... 괴로우십니까?

전하 허허.. 그리 보이느냐?

승지 성삼문이 지은 시조의 숨은 뜻은, '충절'임을 알고계십니까, 전하.

전하 충절?

승지 예. 아버님이 전하께 다하지 못함을 글로 남기신 것이옵니다.

전하 ...

승지 제가... 아버님의 뜻을 다할 것이옵니다.

전하 ...

승지 그러하오니... 한 치의 괴로움도 있으시면 아니됩니다.

전하 ...

승지 아버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서도 '충절'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하 어찌하면... 되겠느냐.

승지 ... .. 강건하시면 됩니다...

전하 !

조명 어두워지고 밝아지며 포우 공사의 집이다.

포우와 그의 조수가 있다.

포우, 조수에게 '직지'와 '밀서'를 준다.

포우 나는 이곳을 정리한 후 프랑스로 갈 것이다. 사나흘을 걸릴 것이니 너는 내 일 아침 첫 배가 뜨면 먼저 조선을 떠나거라.

조수 알겠습니다.

조수, 퇴장하려고 하면 붙잡는다.

포우 잠깐!

조수 ...?

조수에게서 밀서를 챙긴다.

포우 이것은 내가 갖고 있다 직접 가지고 가야겠다. 너는 이 서책만 갖고 가거라.

조수 예.

포우 귀중한 물건이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다른 누군가에서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조수 알겠습니다.

포우 가 보거라.

조수 네.

조수 퇴장한다.

포우, 밀서를 안주머니에 넣는다.

그때 자객으로 보이는 남자1,2 나타나

소리치려는 포우의 입을 막고 그를 죽인다.

남자1은 이곳저곳을 뒤지며 '직지'를 찾고

남자2는 포우의 안주머니에서 밀서를 꺼낸다.

두 남자는 직지를 찾지 못 하고 밀서만 갖고 방을 나간다.

조명 어두어지고 무대 오른쪽 구석에 조명 비춘다.

나까무라상과 이판 보이는.

이판 나까무라상.. 그자는 프랑스 공사입니다. 죽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전하는 역모를 피한 알려진 공사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뜻...

나까무라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판?

이판 나까무라상...

나까무라 어차피 조선땅에서 죽은 것, 대 일본제국과는 무관합니다. 밀서만 전달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판 하지만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나까무라 지금 프랑스의 정세가 혼란합니다. 그깟 공사 한 명 죽었다고 이 먼 곳에 있는 조선과 전쟁을 한다? 하. 우습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려 우리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과 전쟁을 해서 얻는 것보다 일본과 손잡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까지 일본이 손해를 좀 봐야겠지만요.

이판 그럼 직지는?

나까무라 이관! 언제부터 직지에 그리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관이 일만 제대로 했어도 일본이 손해를 봐야 하는 일 따윈 계산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관 하지만...

나까무라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그깟 직지가 무슨 상관이라고! 쫓쫓. 뒷수습은 알아서 하시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대.일.본.제.국.을 위해서 해주셔야겠지요?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당황한 이관은 한참동안 무대에 혼자 서 있다.

조명 어두워진다.

밝아지면 전하, 승지, 사당, 군관이 있다.

전하 뭐라 했느냐!

군관 ...

전하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다!

군관 이관과 나까무라상이 손을 쓴 듯합니다.

전하 허나... 허나 어찌 공사를 죽인단 말인가! 어찌... 어찌하여!! 밀서는 찾았느냐?

군관 포우 공사의 시신 옆에 찢어진 종이를 발견했사운데...

전하 ... 옥새가... 찍힌 부분이구나...

군관 송구합니다...

전하 직지는 찾았느냐?

군관 하인의 말이, 포우의 조수로 일 하던 자가 첫 배를 타고 급히 프랑스로 갔다 합니다.

전하 ... 짐이 그자에게 반드시 직접 전하라 명하지만 았았다면...

군관 전하!

승지 제가 가겠습니다.

전하 ?

승지 저에게 밀서를 주십시오. 프랑스 국왕에게 직접 전하고 직지 또한 찾아오겠습니다.

전하 아니 된다.

승지 전하!

전하 프랑스 공사도 죽인 자들이다. 그대는 조선땅을 떠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승지 전하! 허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사옵니다.

군관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사당 나도 가겠어!

조명 어두워지고 해설자 비춘다.

해설자 누구 말이 옳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조선땅을 떠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홍승지는 그의 아버지 홍승언이 일지와 직지를 묻었던 그 곳에 그의 일지 또한 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읽고 있는 이 서책입니다. 아마 그는 조선땅을 떠나지도 못 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왜 그랬냐고요? 그야... 그의 말대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가 말했던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일, 두 가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과 직지를 찾는 일. 이 두 가지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이전에... 이 서책을 읽었던 자가 있었을까요? 그는 홍승지가 남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했지만 그자 역시 실패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서책을 덮고 읽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지는... '앙리 베베르'라는 프랑스 사람이 경매로 구입을 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지요.

전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이미 역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후자는... 후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서책을 읽은 지혜과 기백으로 말입니다.